

2012  
Free of  
Culture

Post-Tree of Culture, Gyeongju

무巫 · 무武 · 무舞 :

# 유목에서 정주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





# 목 차

Post - Tree of Culture, Gyeongju 개요 4

## Intro

- **여는 글**
  - 유목에서 정주(定住)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制度化) 5  
이상일 / (사)문화다움 이사장
  - 잃어버린 우리 찾기 7  
강준혁 / 문화기획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 **"Tree of Culture" 2012 그리고 2013** 11
  - 서울, 하라호름 그리고 경주로 이어지는 인류의 문화창고를 찾아서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 Session 1

- **발제1. 우리문화 속 유목문화의 흔적** 22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 **발제2. 신라에서 캐낸 유목문화의 흔적** 34  
강인욱 /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Session 2

- **발제3. 고구려 기마무사와 무예훈련** 41  
허인욱 / 고려대학교 한국사 박사
- **발제4.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52  
김인희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Session 3

- **대담1. 예술, 교육, 사회까지 확장한 무<sup>巫</sup>.무<sup>武</sup>.무<sup>舞</sup>**
- **대담2. 유목문화와 새로운 정신문화**  
좌장 / 강준혁 문화기획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대담 / 이희수, 김인희, 허인욱, 이상일, 추미경, 육태안

## Session 4

- **종합토론**  
발제자 전원, 객석과의 열린 토론



## Post - Tree of Culture, Gyeongju 개요

- 일 시 : 2012년 11월 1일(목) ~ 2일(금)
- 장 소 : 경주국립박물관 수목당
- 주최/주관 : (사)문화다움
- 후 원 : 행정안전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분	내용	
11/1(목) 문화답사	- 장소 : 경주 무열왕릉, 대릉원 천마총 등 - 내용 : 고대문화 흔적 찾기/ Tree of Culture, 2012 내용 공유	
11/2(금) Post-Tree of Culture	- 주제 : 유목에서 정주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 - 사회 :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11:0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ro/ 여는 말 이상일_(사)문화다움 이사장</li> <li>▪ "Tree of Culture" 2012 그리고 2013 - 서울, 하라호름 그리고 경주로 이어지는 인류의 문화창고를 찾아서 추미경_(사)문화다움 상임이사</li> </ul>
	11:3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1 발제1. 우리문화 속 유목문화의 흔적 : 이희수_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발제2. 신라에서 캐낸 유목문화의 흔적 : 강인욱_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li> </ul>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2 발제3. 고구려 기마무사와 무예훈련 : 허인욱_고려대학교 한국사 박사 발제4.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 김인희_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li> </ul>
	14:3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3 대담1. 예술, 교육, 사회까지 확장한 무·무·무 대담2. 유목문화와 새로운 정신문화 : 좌장/ 강준혁_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 대담/ 이희수, 김인희, 허인욱, 이상일, 추미경, 육태안_전통무예가</li> </ul>
	16:00~16:30	Break Time
	16: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4/ 종합토론 : 발제자 전원, 객석과의 열린 토론</li> </ul>



## INTRO

---

# 유목에서 정주(定住)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制度化)

---

이상일  
(사)문화다음 이사장

## 유목에서 정주(定住)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制度化)

이상일  
(사)문화다움 이사장

(사)문화다움이 다른 예술기획팀들과 차별화되는 첫째는 학술심포지엄 하나 개최하는 데 있어서도 메인을 가운데 놓고 전후에 작은 학술예비모임과 사후 학술토의를 거듭한다는 사실이다. 주제 하나 놓고 일회성 학술회의의 진행시켜 나가 결과보고서 한권 내고 마는 것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학술심포지엄이 관행화되어 버린 세태 속에서 나는 문화다움의 학술예비모임과 Post-Tree of Culture 같은 사후 학술토의 방식을 아주 양심적인 주제 추구 방식이라고 다짐한다.

문화다움은 그렇게 인류의 오랜 정신적 자산과 문화 가치를 현재의 문화현장으로 가져 오려는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를 발의해 나온 지 10년이 되었다. <Tree of Culture>라는 이름으로 몽골, 러시아 브리아트공화국, 한국 세 나라가 서로 돌려가며 문화교류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온 시간도 세 나라 사이에 MOU가 체결된 2008년부터 치면 어언간 5년이 넘는다.

주제 선정도 시야를 멀리 두어 시베리아 몽골 초원을 거쳐 유목민족들의 아득한 흔적을 더듬으며 역사 이전의 상상의 세계에 이르고 마침내 역사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문명적 시스템에 대한 성찰의 눈길을 주고 있다.

이번 <Post-Tree of Culture, Gyeongju 2012>는 지난 7월에 몽골에서 개최했던 <흉노-고대문화로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지식>의 사전 프로그램 <Pre-Tree of Culture, Seoul: 무(巫)무(武)무(舞)>를 확대하여 고대 북방아시아 공통의 문화의 뿌리와 확산 경로를 살펴보는 자리라서 더욱 의의 있고 얻을 것이 많은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 INTRO

---

# 잃어버린 우리 찾기

---

강준혁

문화기획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 잃어버린 우리 찾기

강준혁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약 100년 전 우리의 마지막 왕조는 끝났다. 내부적인 변화나 개혁에 의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침략에 의해 강제로 막이 내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60여 년 전 침략자는 물러났지만 이 또한 또 다른 외부 세력들에 의한 것이었기에 곧바로 우리나라는 타의에 의해 두 동강이 나버렸으며, 그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지난 두 세대를 섬 속에 갇혀 살게 되었다.

섬생활 초기 10년은 실로 혼란과 곤궁의 시기였다. 광복이 되면서도 3년 동안은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으며, 그 후 왕조를 벗어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된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가 그 틀을 잡기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이 땅에서 치러야 했었다.

전쟁 후 약 30년, 즉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다시 세우며 살아왔다. 미숙한 정치관의 부패를 민중 혁명으로 쓸어버렸으며, 또 다른 부패는 군사혁명까지 불러왔지만 부서진 나라는 다시 세워지고 경제적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까지는 누구도 나 개인 보다는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앞세웠다. 그러지 못함을 부끄러워했으며 나라와 민족보다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손가락질 받기가 일쑤였다. 또한 이때까지는 휴머니즘이나 낭만주의란 말이 쑥스럽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의 추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력은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이 너무도 빠르게 진전되면서 굴러들어온 잉여에너지를 잘 처리하기에는 그 준비기간이 너무도 부족했다. 갑자기 생겨난 힘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하간 절대빈곤 시대를 청산하면서 생겨난



잉여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결코 적절한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초기에는 더욱 그러하여서 선진국에서 그 모델을 찾아 이를 흉내 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TV를 사고, 자가용을 가지며 집을 늘리거나 신축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일이며, 가족끼리의 외식이나 극장 나들이, 골프치기 같은 행동에 따른 소비패턴이 그 다음이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비패턴들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씩씩이를 키워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씩씩이를 견딜 만한 수입구조를 생각하고 그러한 수입구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직장을 찾으려 했다. 또 그러한 직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경제적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며,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경제력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생각의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간 것뿐이리라.

실로 지난 한 세대 동안 잃은 것은 너무도 많다.

5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홍익인간’, ‘애국’, ‘애족’, ‘호연지기’를 들어왔다. 이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가치를 들먹이면 자연스럽지 못한 시대가 된 것이다. 실로 우리가 잃은 것은 ‘큰 생각’, ‘큰 마음’, ‘큰 뜻’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는 ‘글로벌 한국’을 떠들어댄다.

아마도 세계를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 세계를 걱정하고 인간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을 꿈꾸는 것이리라, 세계에 기여하여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보다는.

아마도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인간 자체를 존중할 줄 알아서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한국인보다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좁은 섬생활을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와 함께 크게 숨을 쉴 때가 되었으며 우리가 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다른 선조들과 피를 나누었음을 알 때가 되었으며 우리의 깊은 생각이 남의 깊은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 함께 대륙으로의 문을 열고, 과거와 미래의 문을 열어 봅시다. 깊은 정신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상들과 만나고 높은 순도의 정신을 통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 INTRO

---

# “Tree of Culture” 2012 그리고 2013

서울, 하라호름 그리고 경주로 이어지는  
인류의 문화창고를 찾아서

---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Tree of Culture" 2012 그리고 2013

### - 서울, 하라호름 그리고 경주로 이어지는 인류의 문화창고를 찾아서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2008년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 처음 시작한 <Tree of Culture> 프로젝트가 지속된 지 5년이 지나고 있다. <Tree of Culture>는 북방아시아 공통의 문화 뿌리를 찾아 현재와 미래로 연계하고자 하는 뜻을 공유하는 몽골 국립예술대학,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 그리고 (사)문화다움이 MOU를 맺고 번갈아서 프로그램 주최를 맡아 키워가는 문화의 나무이다.

<Tree of Culture>는 또한, 서구문명에 기초한 담론과 실천들이 문화현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북방아시아 공통의 문화 뿌리를 찾아감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문화적 시각을 구축하고, 잃어버렸던 아시아의,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오랜 정신적 자산과 지혜를 문화현장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문화다움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2008년 세 기관 Rector를 중심으로 큰 차원의 뜻을 세우면서 시작된 <Tree of Culture>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형식이 진화<sup>1)</sup>하고 있다. 처음에 서로 약속한 원칙에 따라 해마다 각 국의 기관들이 번갈아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학술적 국제문화포럼에 국한되지 않은 북방아시아 문화교류 프로젝트로서 각국 문화와 문화현장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 문화적 스킨십을 통한 소통과 신뢰의 구축, 그리고 전년도에 <Tree of Culture>에서 함께 정한 주제에 따른 국제문화포럼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를 주제와 연관 지어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제문화포럼 외에 문화적 소통이나 교류에 대한 비중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또한 국제문화

1)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은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 2008~2011>((사)문화다움, 2011)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포럼에서도 학술적 발제를 포함해서 주제에 맞는 예술의 실연, 문화의 접목 등을 늘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Tree of Culture 2012>는 운영되고 있다. 2011년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가 주최로 운영하였던 <Tree of Culture 2011>에서 공동의 논의를 통해 2012년 주제로 “흉노 고대문화로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지식; Esoteric knowledge within the ancient culture of the Hunnu State”을 정했다. 때문에 2012년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실 세 기관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당연히 정착문화의 세련됨을 축적해 온 한국의 (사)문화다움이다. 아직도 일상에서 유목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몽골 국립예술대학,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문화적 관료성의 잔재를 곳곳에 가지고 있는 러시아 브리야트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는 각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 아닌 2개의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도무지 세련 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주제에 다가가는 방식이나 자료화의 수준 등에서도 차이가 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본질적 인식에서는 <Tree of Culture>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는 다른 문화적 깊이와 결을 보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북방아시아 공통의 문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달라져 버린 현대의 생활양식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화의 차이로 생각된다.

(사)문화다움은 2011년부터 해외에서의 본 프로그램 전에 항상 한국에서 별도의 사전, 사후 프로그램(Pre & Post Tree of Culture)을 운영해왔다. 우리 스스로 주제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국내 문화계를 비롯한 다양한 연관 분야에 공감대를 확산하여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Tree of Culture 2012>는 순서에 따라 몽골 국립예술대학이 주최하였으며, 몽골 고대 수도인 하라호름(Khar-Khorum)에서 진행되었다. (사)문화다움은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의 주제인 “흉노 고대문화로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지식; Esoteric knowledge within the ancient culture of the Hunnu State”에 대한 세부 주제로 <Pre-Tree of Culture, Seoul 2012 「무(巫) · 무(武) · 무(舞)」>를 6월에 먼저 진행하였고, 7월 하라호름에서의 진행될 주제를

한국에서 먼저 공유하고, 또 의견을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었다. 한국 고대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문화의 뿌리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선으로 무(巫) · 무(武) · 무(舞)의 관점을 선택하였고, 이를 전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2년 <Tree of Culture>주제로서 고대민족인 훈족과 그 문화에 대한 공통의 관심, 그리고 그 광활했던 유목문화의 뿌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7월에는 몽골의 나담축제 기간과 연결된 시기에 몽골 칭기즈칸 시대의 고도시인 하라호름에서 <Tree of Culture 2012>가 진행되었다. 현재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도착해서 사전 미팅을 한 후에 다시 하라호름을 향해 거친 도로 위를 버스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로부터, 그리고 주최국인 몽골 국립예술대학으로부터, 한국의 (사)문화다움으로부터의 마음들이 모여서 북방아시아 고대 문화로부터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 <Pre-Tree of Culture, Seoul 2012>

### 「무(巫) · 무(武) · 무(舞)」 개요

- 일 시 : 2012년 6월 7일(목) 12:30~16:30
- 장 소 :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
- 주최/주관 : (사)문화다움
- 후 원 : 행정안전부

시간	내용
12:30~13:00	참가자 등록
13:00~13:20	<b>Intr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는말 - 이상일 / (사)문화다움 이사장</li> <li>▪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 소개 -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li> </ul>
13:20~14:10	<b>Session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속, 무예, 무용을 통해 찾아보는 유목민족의 흔적, 그 비밀스러운 강준혁 /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li> <li>• 렉처퍼포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용무 - 이진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 조교</li> <li>도살풀이 - 김운선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김숙자 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li> <li>검무 - 한무 육태안 / 전통무예가, 수백치기 전인 강태환 / 알토 색소폰</li> </ul> </li> </ul>
14:10~14:30	휴식
14:30~15:10	<b>Session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기관<sup>화랑, 선배제도</sup>로부터의 무<sup>巫</sup>.무<sup>武</sup>.무<sup>舞</sup>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li> </ul>
15:10~15:50	<b>Session 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마민족의 말<sup>馬</sup> 문화로부터의 무<sup>巫</sup>.무<sup>武</sup>.무<sup>舞</sup> 강인욱 /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li> </ul>
15:50~16:30	<b>종합토론</b> 발제자, 참가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파티</li> </ul>

<Pre-Tree of Culture, Seoul 2012>  
 「무(巫) · 무(武) · 무(舞)」



<Tree of Culture, **Khar-Khorum in Mongolia 2012**>

개 요

**COLLABORATIVE PROJECT “TREE OF CULTURE”**

between the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Daum Society for Cultural Energy,  
East Siberian State Academy of Culture and Arts

**“TREE OF CULTURE 2012”**

Ulaanbaatar - Khar-khorum, Mongolia

July 7 - 10th,2012

**Schedule:**

July 7<sup>th</sup>,2012 Arrival to Ulaanbaatar, Mongolia

July 8<sup>th</sup>,2012 Departure to Khar-Khorum (visiting cultural heritage places and museums)

July 9<sup>th</sup>,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Tree of Culture 2012: Esoteric knowledge within ancient culture of Hunnu State”

July 10<sup>th</sup>,2012 Departure to Ulaanbaatar

**International conference**

**“ESOTERIC KNOWLEDGE WITHIN THE ANCIENT CULTURE OF THE HUNNU STATE”**

*Khar-Khorin, July 9, 2012, 09.00AM - 18.00PM*

Presentations 12 minutes for each participant

Comments 3 – 5 minutes for each participant

Moderator Ch. Altantsetseg

Secretary S.Soronzonbold

## PRELIMINARY PROGRAM OF THE CONFERENCE

- 09:00 – 09:20     **Opening remarks**  
SONINTOGOS E., Rector of MSUAC  
REPRESENTATIVE of the local authority
- 09:20 – 10:40     **Presentations**  
KANG JOON HYUK, Republic of Korea  
Lee JinHo(Cheoyong Mask Dance)  
Yook TaeAn(Traditional Martial Arts)  
Kim WoonSun(Traditional Dance derives from Shaman Ritual)  
“In search of traces of nomadic tribes and their  
secrets through Shamanism(巫), Martial Arts(武),  
and Dance (舞)”
- PSHENICHNIKOVARI.I., Russian Federation**
- 10:40 – 11:00     Coffeebreak
- 11:00 – 12:30     Visiting Khar-Khorin sum Naadam site
- 12:30 – 14:00     Lunch
- 14:30 – 15:20     **Presentations**  
SORONZONBOLDS., Mongolia  
“Symbolism of music thinking of the Huns”
- CHOO MEE KYUNG, Republic of Korea**  
“In Search of Wisdom from the Ancient Hunnu  
State to the Present day: Shamanism(巫),  
Martial Arts(武), and Dance(舞) in the Education  
of Ancient Korean Leader Groups”
- DUGARJAPOVD.V., Russian Federation**
- BAYARTUR B., Mongolia**
- 15:20 – 15:40     Discussion  
(3-5 min for each comment)

- 15:40 – 16:00 Coffee break
- 16:00 – 16:50 **Presentations**  
**ERDENETSETSEGSh.**  
 “On worshipping the sun by Mongols”
- KANG IN UK**, Korea  
 “Xiongnu and Ancient Korea – some evidences of interactions between nomad and sedentary nations”
- BATUEVAI.B.**, Russian Federation
- PUREVLKHAM L.**, Mongolia  
 “Esoteric knowledge of stone image at the Baga Ereen”
- 16:50 – 17:10 **Discussion**  
 (3–5 min for each comment)
- Conference closing session**
- 17:10 – 17:25 **Closing remarks by**  
 SONINTOGOS ERDENETSOGT  
 KANG JOON HYUK  
 PSHENICHNIKOVA RAISA IVANOVNA
- 17:25 – 17:50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the Conference Resolution**  
**CH. ALTANTSETSEG**  
**CHOO MEE KYUNG**  
**DUGARJAPOV D.V.**
- 17:50 – 18:00 **Photo session**



# <Tree of Culture, Khar-Khorum in Mongolia 2012>





올 여름 하라호름에서 세 기관이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Tree of Culture 2013> 주제를 “유목문화와 새로운 정신문화”로 정했다. 2013년 주최국인 한국의 (사)문화다움에서는 2012년 주제와 연동해서 훈족을 비롯한 고대 유목문화의 흔적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고도 경주에서 <Tree of Culture 2013>을 10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결정, 세 기관과 공유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2년 11월 초 현재, <Post-Tree of Culture, Gyeongju 2012 「유목에서 정주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가 시작된다. 2012년 <Tree of Culture>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3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때문에 주제를 풍성하게 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초청되었고, 북방아시아 고대 문화의 뿌리를 캐내는 의미 있는 이야기자리이자 문화적 소통의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Tree of Culture>를 매년 운영하면서 해마다의 발자욱을 모두에 환기하고 또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사)문화다움이 여러 협력자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의 표현이며, 우리끼리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공유함으로써 미래에는 더 큰 힘으로 함께 넓혀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SESSION 1

---

# 우리문화 속 유목문화의 흔적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공주의 천년사랑

---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물관장

우리문화 속 유목문화의 흔적  
-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공주의 천년사랑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물관장

1. 글머리에

우리 고대사 해석은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제한되고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자연과학 등 인접 학문의 성과도 크게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신라와 관계를 맺었던 세계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국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미 있는 재해석을 시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신라와 아랍-서아시아 사이에는 일찍부터 열려있는 실크로드라는 문명의 젓줄을 따라 1만km가 넘는 지리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유목문화적 요소가 물밀듯이 한반도로 몰려와 우리문화의 단단한 기층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인적인 교류와 접촉도 매우 빈번하였다. 이렇게 보면 신라사회만 해도 글로벌 DNA를 가진 채, 북방의 유목문화를 혼신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2. 투르크계 유목민족들과의 교류

1) 흉노(BC 4-1세기)

투르크 역사는 흉노(BC4-1세기)로부터 시작된다. 흉노는 다양한 부족연합체의 성격이지만, 지배부족은 투르크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924년 러시아 고고학 탐험대 코즐로프 일행이 기원전 1세기 흉노고분인 노인올라가 발굴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흉노는 중국과 오랜 협력-전쟁 관계를 반복하다가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되었음)을 기원전 1세기경 쇠퇴된 후 서진하여 여러 작은 부족연합체를 구성하다가 4세기말경 유럽에 등장하는 훈족으로 성장하였다. 흉노와 유럽 민족 대이동을

축발시킨 훈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다. 흉노의 왕권경쟁에서 밀린 일파(김일제)가 신라로 와서 신라의 김알지계를 이루었다는 최근 김병모 교수의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라고분이 흉노고분 양식과 거의 흡사하고, 천마총의 천마도에 묘사된 말도 흉노 계통의 말이다.

## 2) 돌궐제국(6-8세기)

현재 터키족의 직접적인 조상은 중국역사에 등장하는 돌궐이다. 돌궐은 “투르크(Turk)”의 중국어 음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터키라는 국가와 종족명칭은 돌궐에서 연유되었다. 돌궐은 하늘을 섬기는 신성한 종족으로 이리를 숭상하는 건국설화를 갖고 있다. 우리 민족과 같은 알타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민족적 친근감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6-8세기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에 걸쳐 대제국을 이룩했던 돌궐은 특히 고구려와 긴밀한 군사-교역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수나라 607년 기록). 특히 731년 돌궐제국 왕인 빌게 카간의 장례식에는 중국은 물론 고구려에서도 조문사절이 당도했음을 알려주는 돌궐비문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터키인들은 돌궐에 대한 애착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한국과 터키간의 고대 친근관계를 말해주는 흥미 있는 대목이다.

## 3) 위구르 제국(8-9세기)

돌궐을 이어받은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국가는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제국(8-9세기)이다.

위구르족들이 서쪽으로 이주해가면서 수많은 작은 국가들을 세웠고 한 일파인 오우즈족들이 주도하는 카라 한 왕조때 9세기경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 이슬람을 받아들인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왕조이다. 한반도의 위구르: 위구르는 중국인들에 의해 회회인(回回人)으로 불렸으며, 위구르인들을 통해 이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회교(回教), 회회교(回回教)로 불렀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무수히 등장하는 회회인들이 이슬람화 된 위구르인을 지칭하고 있으며, 고려 말 몽골의 제국공주를 모셔왔던 회회인 삼가는 현재 덕수 장씨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도시문화와 유목문화를 간직한 위구르인들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집단촌을 이루며 한국사회에 우수한 이슬람 문화와 유목적 전통을 전해준 두뇌집단 역할을 했다.

### 3. 고대 신라-서아시아 문화교류

7세기 이전까지는 아직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원거리 항해술과 그에 적합한 선박의 건조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근해 해상 교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육상실크로드가 이용되었다. 육상 실크로드는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중국의 서안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 수많은 지로와 간선도로가 있어 싹뿍처럼 교역 망이 연결되고 있었다. 간선도로를 따라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한 대상과 교역 물품들은 통상 1년의 시차를 두고 신라사회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sup>2)</sup>.

실크로드가 개척된 기원전후 시기부터 서역의 진귀한 물품은 물론 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음식, 종자, 과일, 야채 등 새로운 삶의 동반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개량되었다. 한대(漢代)에 이미 페르시아산 포도와 석류가 중앙아시아에 알려져 재배되었고, 파, 마늘, 참깨, 홍화(紅花:잇꽃), 수박, 참외, 오이 등은 물론 러시아 남부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목숙(苜蓿)이라 불리는 말의 사료로 인기가 높던 개자리가 소개되어 재배되었다. 이들 산물은 서역에서 왔다 하여 대부분 ‘호(胡)’라는 접두어를 붙였다. 호도(胡桃), 호마(胡麻), 호과(胡瓜), 호두(胡豆) 등이 대표적이다. 음식재료가 오면 음식문화도 당연히 함께 오는 법이다. 특히 설탕을 만드는 제당법과 술을 빚는 다양한 방식들도 서역에서 중앙아시아로 다시 중국과 한반도로 전해졌다. 설탕은 인도에서 유래되었는데, 아랍 상인들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설탕의 아랍어 명칭 ‘sukkar’가 영어 ‘sugar’로 되었다. 포도 주산지인 고창이나 페르가나 지방의 포도주 제조법이 중국에 소개되고 페르시아 양주법도 전해져 당나라 시기 장안에는 호점(胡店)에서 서역주인 호주(胡酒)가 유행했다고 전한다<sup>3)</sup>.

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와 서아시아와의 관계는 이슬람 이전 교류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슬람 이전 실크로드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동아시아에 전해 준 문화적 파급효과는 지대한 것이었다. 메디아 왕조와 아케메네스 제국이 이룩한 오리엔트의 문화적 축적을

---

2) 정수일은 경주에서 로마까지 실크로드 교역거리를 약 36,840리(14,750km)로 계산해 놓았다. 경주에서 베이징(과거 幽州)까지가 4,310리, 베이징에서 장안까지 2,530리, 장안에서 로마까지가 약 3만 리로 추정했다(정수일, 실크로드학, 46쪽). 그러나 신라 중기 이후 교역의 서쪽 종착지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이었고, 수송기간이 생명인 특별한 희귀 경쟁 상품들은 속도를 더해 8개월이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신라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

3)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74쪽



고스란히 보존한 사산조 페르시아는 5-7세기경 매우 성숙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예술사적 영향은 물론 당시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조차 포용하여 동아시아로 전해줌으로써 기독교 진리가 퍼져나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산조 페르시아를 통한 유리제품과 카펫류가 신라에 도입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후일 이슬람 세력에 의해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자 많은 정치적 망명자들이 동아시아로 피신한 정치적 사실이나 아랍기록에 이란지방의 알리의 추종자들인 알라위<sup>4)</sup>의 존재가 보이는 것도 연구해 보아야할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에는 통일신라 직전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해로로 신라에 정치적 망명을 해오면서 신라 공주와 결혼하고 신라사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남긴 <쿠쉬나메>라는 고대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가 발굴되어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실크로드 교역과 문화적 접촉의 종착역은 한반도였다. 조선초기까지도 한반도는 바깥문명에 열려있었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비교적 단단한 자기용광로를 갖고 있었다. 고대 이래로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이나 이념적, 문화적 영향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이 주가 되었지만, 서아시아 일대의 새로운 정치세력들과도 광범위한 바닷길 접촉을 이어왔다. 그 결과 신라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교역품을 수입하여 사치와 향락생활을 구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식, 페르시아 상인에 의한 서역 특산물이 신라 상층부는 물론 일반 백성에까지 널리 애용되었다. 이리하여 당시 신라 수도 금성(金城)은 풍요로운 장안 생활을 모방하려는 신라 귀족들의 사치풍조 만연과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외래품이 범람하여 오염된 도시문화를 그래도 반영하고 있다. 신라 사회에서의 이러한 과소비와 무절제한 고가 수입품의 확산은 급기야 흥덕왕(興德王) 9년(834년)에 이르러 수입 사치품을 금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법령의 공포를 자초하였다.

<……사치와 호화를 일삼는 백성들은 진귀한 외래품만을 선호하고 토산품을 배척하니, 문란하고 풍속이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하여 법령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니, 여기는 자는 법에 따른 징계를 면치 못하리라.><sup>6)</sup>

4) 알라위(Alawi): 이슬람의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추종하는 무리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순니파에 대별되는 시아파를 지칭하기도 한다.

5) 쿠쉬나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2011, 385~389쪽 참조 /이희수, 2012,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Kush-nameh)의 발굴과 신라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20-3집/

6) <삼국사기> 권33/잡지 2

구체적인 사치물품으로는 향료, 에메랄드 종류인 슬슬, 귀한 모직품 등에 대한 사용 제한규정을 발효했다. 금령에 따르면 진골은 타고 다니는 수레에 육두품에서 백성까지는 가마와 침상에 향료인 동남아시아산 자단과 서아시아산 침향을 쓸 수 없도록 했다<sup>7)</sup>.

이로 미루어 외래품이 신라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페르시아산 유리, 카펫의 사용, 장신구와 페르시아풍 금속공예와 황금보검, 서역인 토용과 쾌능의 무인석상<sup>8)</sup>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서아시아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석조물로는 감은사 부도 사천왕상의 사자두상을 들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인 7세기의 유물은 사자상은 헤라클레스의 사자두상과 비교될 수 있는데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경주박물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입수쌍조문(立樹雙鳥文) 석조유물과 황룡사 목탑지 사리공에서 발견된 화수대금문금구(花樹對禽文金具)도 실크로드 교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의미 있는 유물이다. 나무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두 마리의 새를 대칭시킨 후 둥근 테두리를 연꽃 장식으로 조각한 유물들이다. 이러한 모티프와 조각 기법은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속하는 전형적인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9)</sup>.

#### 4. 황소의 난과 처용의 재조명

##### 1) <황소의 난>과 무슬림들의 한반도 진출

다소 과장이나 수치의 오류가 있겠지만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을 남긴 아랍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황소의 난에 희생된 아랍-페르시아인 중심의 외국인 상인들의 숫자는 12만 명에 이른다. 죽은 사람이 12만 명 정도였다면 살아남거나 도망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적어도 20만 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그들은 대살육의 난을 피해 여러 경로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다. 도피방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무슬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으로 내륙으로 도망가 신분을 숨기고 중국 사회에 스며든 경우다. 번방에서 고유한 복식과 습속을 유지하면 살던 그들은 이슬람적인 외피를 버리고 중국적인 문화를 대폭 수용했으며 부분적인

7)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상), 222~223쪽

8) 권영필은 이란계로, 민병훈은 소그드인으로, 정수일은 아리안계나 터키계로 보았다.

9)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상), 224쪽

동화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맨 먼저 한화(漢化)와 한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어렵고 긴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화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가부장적인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상당부분 유지해 갔다. 외부문화에 개방적인 당송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돼지고기 금기 같은 계율만 지키면 사실상 무슬림으로서 중국문화와 크게 충돌할 것은 없었다. 그들이 바로 중국 이슬람공동체를 형성한 회족들의 선조들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 회족이 수천만 명 규모로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한화한 무슬림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들의 회피로는 동남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걸프해나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 동남아를 거쳐 중국에 정착한 그들은 동남아 각지에서 단단한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며 교역을 하고 있는 동족 상인들 집단에 의지하고 흡수되었을 것이다<sup>10</sup>. 참파(베트남 남부), 시암(태국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남서부 해안도시에서 기존의 무슬림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만든 이 대이주 덕택에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었다. 즉, 그들에 의해 힌두교와 불교가 훨씬 오래전부터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후일 동남아 해안 지방 대부분이 이슬람화 되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처럼 황소의 난은 무슬림들의 동남아 유입과 이슬람화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게르만 민족이동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최대의 민족 이주 사건이었다.

셋째, 도망자들의 마지막 선택은 신라였다. 항주와 양주 등으로 확산된 반란의 대학살 과정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그들이 해상에 정박해 있는 배를 이용해 바로 이웃의 신라로 피신해 오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이미 중국의 양주-항주와 신라 사이에는 장보고 해상세력의 와해이후 30~40년간 빈번한 내왕이 이루어지면서 신라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해로를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황소의 난이 종결되는 시점인 879년 처용이 신라의 울산 앞바다에 도착한

---

10) 인도 서부 해안지대는 우마이야 왕조의 이라크 총독 하자즈 빈 유습의 명으로 712년 무함마드 빈 까심 장군에 의해 완전 정복되어 급속한 이슬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 9세기말에는 인도서부는 물론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같은 나라의 해안 도시에는 단단한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Zaman & Akhtar, *Islam in South Asia*, 3~9쪽/Gordon, *The Propagation of Islam in the Indonesian-Malay Archipelago*, 25~27쪽).

것이다<sup>11)</sup>. 황소의 난이 평정되는 바로 그 시점에 처용이 신라에 등장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역사적 필연은 아닐까?

물론 구체적인 사료가 확인될 때까지는 가설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처용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바로 이웃인 중국의 동남부 해안지대를 강타한 대살육과 그 피해자인 무슬림 상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처용의 실체와 설화의 분석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처용은 황소의 난을 피해 잘 알려진 해로를 따라 신라로 찾아온 중국 동남부 출신의 무슬림 상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처용설화의 서사적 구조는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다음 절에서 살펴볼 쿠쉬나메의 서사구조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 왕자 아비틴이 유민들과 함께 신라로 기항해 항구에서 신라왕 타이후르의 영접을 받았으며, 왕정을 보좌하고 왕과의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설화적 인물인지 역사상 실존인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치열하거나와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sup>12)</sup>. 그동안 처용에 관한 연구논문만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300편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니 처용의 성격규명과 관련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처용이 서역계 인물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종족적 원류에 관한 다양한 추정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처용등장시기에는 수십만에 육박하는 많은 수의 아랍-페르시아계 상인들이

---

11) 울산 반구동 일대가 신라 시대 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다는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성공으로 미루어 보아 처용이 등장하는 9세기말에는 신라의 입항인 울산이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주요한 창구역할 한 것으로 보인다.

12) 처용에 대해서는 국내학계에서 오랫동안 '설화 속의 주인공이냐?' 아니면 '역사적 실존인물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국학계의 대표적인 원로학자인 이우성은 처용을 통일신라기 일탈한 화랑이나 상층집안의 자제로 보면서 설화적으로 이를 해석하였고, 이현숙은 최근 논문에서 처용의 벽사기능과 치유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천연두가 만연된 신라사회와 처용의 등장을 연결 짓는 새로운 연구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학자 이용범은 1960년대 논문을 통해 처음 역사적 실존인물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다가 정수일과 이희수 등에 의해 처용설화(處容說話)의 주인공 처용이 실제 인물로서 879년경 해로를 통해 신라에 당도한 아리안계 무슬림일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 후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용의 외래인설, 구체적으로는 서아시아에서 온 상인계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반도의 지척에 머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신라진출과 이동은 일상적이고 익숙한 경로였다는 점이다.

## 5.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 쿠쉬나메의 신라묘사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 야즈데기르드 3세의 왕자 피루즈(Firuz)가 끝까지 아시아 내륙에서 항쟁을 지휘했다. 피루즈가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많은 이란인 잔존 세력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그러나 중국이 이슬람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이란인들은 당시 중국 주변국 한 왕의 주선으로 신라로 망명하게 된다(KN 2196~2241). 쿠쉬나메에 담긴 사실이다. 이 책은 사산조 페르시아와 신라와의 관계는 물론 신라에 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한반도 바깥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아랍어, 페르시아어 사료보다 훨씬 풍성하고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인들은 아비틴의 인솔 하에 마친에 도착하였고 마친왕의 따뜻한 영접과 선물을 받고 배를 타고 신라로 향했다. 신라로 향하는 모든 배는 마친왕이 마련해주었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신라에 도착한 이란인들은 먼저 그곳 관리를 통해 마친왕의 편지를 신라왕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신라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란인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신라왕은 그의 두 아들을 이란인들이 도착하는 항구로 보내 아비틴과 이란인들을 영접하게 했다(KN 2265~2614)

아비틴과 신라왕 타이후르의 두 왕자는 서로 포옹하며 우의를 나누었고, 신라왕이 있는 궁전으로 향했다. 신라 궁전에 도착하니 음악이 연주되고 큰 환영행사를 준비해 놓았다. 이 대목에서 쿠쉬나메의 저자는 천국에 버금가는 신라 도시의 아름다움(KN 2243~2254), 신라왕의 궁전, 도로와 골목 풍경, 정원, 도시주변 모습, 정원의 새, 신라왕의 환대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후 아비틴은 신라왕의 보호아래 함께 사냥을 다니기도 하고 국정에 대한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신라-이란간의 굳건한 연대를 다져나간다. 신라-이란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이를 두려워한 중국의 쿠쉬가 군대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해 왔을 때, 아비틴이 이끄는 이란군이 신라를 도와 중국군대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드디어 아비틴은 신라왕의 공주인 프라랑(Frarang)과

---

13)이희수, 이슬람과 한국문화, 103쪽/ Akbarzadeh 2010a: 143.

결혼을 요청한다. 신라왕은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허용하고 프라랑은 아비틴의 아이를 임신한다. 많은 예언가들은 장차 태어날 왕자가 바그다드의 자하크를 물리치고 이란인들의 복수를 해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공주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비틴은 이란인들과 함께 다시 조국 이란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중국을 거쳐야 하는 위험한 육로 대신 해로를 통해 이란으로 돌아간다. 이 때 바닷길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신라 뱃사람의 안내를 받았다. 도중에 프라랑 공주는 아비틴의 왕자를 생산한다. 그의 이름은 파리둔(Faridun)<sup>14</sup>이다. 결국 신라왕 타이후르는 나이가 들어 죽고 왕위를 아들 가람이 이어받았다(Akbarzadeh, 2010b:2). 장성한 이란인의 새 지도자 파리둔도 자하크와 그 군대를 물리친 내용을 담은 서신을 외할아버지인 신라왕에게 보냈으나 이미 그때는 타이후르가 사망한 이후라 새 왕 가람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다. 이에 가람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사절단에게 주어 파리둔에게 보내 축하해 주었다. 가람과 파리둔의 우정과 친선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 5. 정리

이슬람 전후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관통하는 서아시아와 한반도 간의 교역과 문화교류의 발전은 주로 국제도시 장안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간접 접촉이 주를 이룬다. 또한 해로를 통해 신라로 직접 내왕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용은 이슬람권에서 신라로 온 실존적 인물이다. 그 시기는 황소의 난과 연관이 있다. 황소의 난은 유럽에서의 게르만 민족 대이동에 버금가는 엄청난 인구이동의 소용돌이였다. 처용일행은 중국 동남부 해안에 오래전부터 거주해 왔던 상인-관료출신으로 이 난을 피해 신라로 망명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신라는 세상에 열려있었다. 수많은 문화와 물자가 오갔고 7세기 중엽에는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울산항을 통해 망명하여 신라사회에 정착한 기록도 보인다. 신라사회 이후 한반도는 글로벌 DNA를 갖고 세상을 호흡했으며,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유목문화 요소를 온 몸으로 받아들였다.

---

14)파리둔은 이란 구전 전승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웅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는 조로아스타 경전 아베스타나 이슬람 이전 이란 파흘라비어(Pahlavi)(로 된 문헌에서 이란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된다. 물론 이슬람 이후 문헌에서도 계속해서 영웅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익숙한 이름이다. 그는 세상을 삼등분하여 그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쿠쉬나메는 물론 아베스타나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 문헌에서도 파리둔은 폭군 자하크를 붙잡아 엘부르즈 산맥 정상인 다마반드 산(Damavand Mountain) 속에 가두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자하크는 쿠쉬나메에서 처럼 쇠사슬을 끊고 도망간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쿠쉬나메의 파리둔 신화는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수일, 2001,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  
정수일, 2005, *한국 속의 세계(상), 창비*  
정수일, 2002, *이슬람 문명, 창비*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청아출판사*  
이희수, 2012,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Kush-nameh)의 발굴과 신라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20-3집  
이희수, 2011,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청아출판사*





## SESSION 1

---

# 신라에서 캐낸 유목문화의 흔적

---

강인욱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 신라에서 캐낸 유목문화의 흔적

강인욱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 I.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신라의 적석목곽분만큼 극적으로 한국과 북방초원을 잇는 유적이 있을까? 서기 4세기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200여 년간 존속하다 홀연히 사라져버린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다. 게다가 수천 km가 떨어진 알타이의 파지릭문화에서 비슷한 적석목곽분이 사용 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학계의 미스터리이다.

북방기원설- 자생설 등 학계 내에서 이것은 분분하다.

신라를 대표하는 경주의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은 일제시대 발굴된 이래 거의 100여 년 가깝게 우리나라 고고학과 고대사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왜냐하면 적석목곽분은 서기 4세기께 갑자기 등장해서 200여 년간 존속하다 홀연히 사라져버렸으며,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남부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파지릭고분군이 조사되면서 신라고분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설이 등장했다. 알타이의 파지릭고분은 신라의 적석목곽분을 빼다 박은 듯 비슷하기 때문이다. 무덤 주변에 돌돌림(호석·護石)을 돌리고 무덤 위에 두텁게 돌을 쌓았으며,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무덤방을 만든 파지릭고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는 너무나 신라의 고분과 흡사하다. 물론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라시아를 통틀어도 이렇게 비슷한 고분은 찾아볼 수 없다.

신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지하에 나무로 무덤방을 만들어 그 안에 시신과 각종 부장품을 넣는다. 그 위에는 돌을 쌓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흙으로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다. 알타이 파지릭문화에서는 땅을 파고 그 안에 무덤방을 만든다.

그 위에 돌을 쌓는 것도 같지만, 더 이상 흙을 덮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눈에 보아도 두 지역의 무덤은 많이 유사하다.

그렇지만 알타이 파지릭문화는 기원전 7~2세기대까지이며,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서기 4세기이다. 적어도 500년의 공백, 그리고 수 천 킬로미터의 지리적 거리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두 지역의 유사성이 바로 논쟁의 중심이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놓고 생각해보자.

먼저 초원지역을 보면, 유라시아 초원에는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1세기 때까지 세계사의 중심에 섰던 초원유목국가 흉노가 있다. 알타이의 적석목곽분을 만들었던 파지릭문화도 흉노에 의해서 망했다. 흉노라는 제국은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로 유라시아 전 지역에 초원계 문화를 퍼뜨렸으며, 또 정착농경민의 문화요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흉노의 지배계층은 현재 몽골공화국에서 파지릭문화와 중국 한나라의 무덤을 모방한 대형고분을 건설했다. 노인올라 유적이 그 좋은 예다.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흉노의 풍습은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예로 남부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근처의 타쉬트익문화(기원전 1세기~서기 5세기)의 고분이 있다. 타쉬트익문화의 무덤은 무덤방을 나무로 만들고 거대한 봉분을 세운 것이다. 신라의 무덤은 지하로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지만, 타쉬트익문화는 옆으로 무덤길을 낸 '횡혈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흉노의 영향을 받아 황금과 대형 고분을 만드는 풍습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흉노가 서기 1세기말 중국에 의해 망하면서 그 일파들은 동으로 서로 흩어지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됐다. 전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라의 적석목곽분도 이러한 초원문화의 광범위한 파급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다. 즉, 파지릭문화의 적석목곽분이 흉노에 유입되었고, 흉노에 의해 재창조된 거대한 고분을 만드는 풍습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흉노와 경주 고분 사이의 중국 북부가 미싱 링크(missing link·잃어버린 고리)로 남아 있다. 아직 3~4세기대 북부 중국 및 몽골지역에서는 거대한 고분이 발견된 바가 없다. 향후 자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파지릭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알타이 지역의 파지릭고분에 쓰여진 목관들을 최근에 나이테측정법으로 다시 연대를 측정한 결과 생각보다 연대가 낮은 기원전 200대임이 밝혀졌다.

중국 역사기록에 흉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300년대이니 파지릭문화는 흉노가 발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석목곽분을 쓰면서 알타이에서 거주했었던 것이 증명되고 있다. 흉노라는 거대한 세력을 중간에 두고 알타이의 파지릭문화와 동아시아 각 지역은 서로 교류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실제로 파지릭문화의 고분에서 발견된 중국의 거울, 그리고 사천성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단 등은 이를 증명한다. 동아시아가 각 지역과 교류하던 파지릭문화, 그들의 문화교류가 과연 한반도까지 이어졌을까? 하루가 다르게 속출하는 고고학적 자료들 덕분에 우리는 그 질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 II. 북방의 풍습을 좋아하던 신라인들

신라와 달리 백제나 고구려에서는 초원계 유물이 거의 없다. 유독 신라인들이 초원계의 황금유물과 무덤을 좋아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북방에서 대량의 기마민족이 내려와 신라의 지배자를 교체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량의 이주민이 내려온 증거는 전혀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인골의 자료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량의 주민 교체보다는 신라인의 자체적 역량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신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분도 북방 초원에서 유행한 것으로 만들었고, 부장품에도 많은 북방의 유물들이 골고루 섞여있었다. 한마디로 신라인들은 북방의 풍습을 좋아했던 것이다. 신라인들이 북방의 유물을 좋아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기 3세기부터 동아시아 각국은 고대국가를 형성하며 경쟁적으로 거대한 고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경주의 신라인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거대한 고분은 일명 '고총고분(古塚古墳)'이라고도 한다. 지배계층은 거대한 고분 축성을 통해 지배력을 확고히 다지고 기층민들은 이런 국가사업에 동원됨으로써 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고대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주변의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와는 달리 독자적인 고유의 고분을 만들고자 했던 신라인은 당시 강력한 유목국가의 무덤을 도입해 그들만의

고분문화를 재창조한 것은 아닐까. 서기 4~5세기 고구려는 신라를 속국으로 간주했고, 실제로 고구려 군인이 신라를 도와주었다. 표면적으로는 속국이어도 신라는 자신들만의 고분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아닌 초원지역의 고분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닐까.

지난 100여 년간 신라 고분의 기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광활한 초원의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슷한 유적이거나 유물이 있으면 기원지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초원의 적석목곽분은 비단 알타이뿐 아니라 주변의 중국 신장성,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발견되며 그 시기도 다양하다. 대형고분은 비단 초원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서쪽으로는 독일과 같은 유럽까지, 동쪽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에서도 사용되었다. 신라 적석목곽분의 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장은 돌아가는 듯해도 차근차근히 광활한 초원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자. 서기 3~5세기 유라시아 초원은 '대민족의 이동시대'였다. 유럽에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선비와 같은 흉노의 후예가 남쪽으로 내려와 국가를 이루던 시기였다. 신라 적석목곽분과 황금문화를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초원계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신라인의 자체적인 역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덤과 황금유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물은 신라인의 토착적인 문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량의 주민들이 신라를 정복한 흔적도 전혀 없다. 즉, 신라인은 북방 초원계 문화를 주체적으로 적극 도입한 것이다. 신라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데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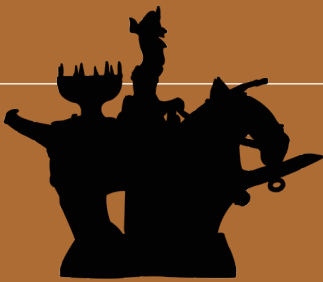
최근 초원지역을 연구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학자들이 신라의 고분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라 고분은 초원 문화가 퍼져나간 동쪽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신라와 초원지역의 관계를 푸는 것은 곧 세계사에서 고대 초원과 농경민족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초원의 자료를 억지로 신라 고분에 끌어들이기보다는 신라의 고분을 넓은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보려는 거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 III.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간단한 마무리

고고학은 지나칠 정도로 건조하게 유물을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고대의 모습은 단순한 물질문화뿐 아니라 정신문화와 여러 인간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전체 유라시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라의 고분은 결코 고립된 것도 아니고, 예외적인 것도 아니다. 흉노의 멸망 이후 유라시아 각 지역은 초원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급속히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바로 그러한 교류의 일단면을 보여준다. 고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북방계 문물을 흡수하면서 신라는 성장했다. 21세기 한국을 돌아보자. 현재 한국도 비록 유라시아 한 귀퉁이에 있지만, 나라의 역량은 결코 적지 않다. 바로 거대한 영토와 무기를 앞세운 무력이 아니라 교류를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왔다. 21세기 한국의 DNA에는 1500년 전 대륙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신라의 역량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 SESSION 2

---

# 고구려 기마무사와 무예훈련

---

허인욱  
고려대학교 한국사 박사

## 고구려 기마무사와 무예훈련

허인욱  
고려대학교 한국사 박사

### 전술변화와 고구려의 기병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는 여러 무기와 무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마무사들의 활약으로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다. 기마무사들은 기본적으로 장창과 환두대도 등으로 무장을 했으며, 목까지 감싼 갑옷과 투구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고구려 기병의 모습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왕(태조)이 마한(馬韓)과 예맥(濊貊)의 1만여 기병을 이끌고 진군하여 현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부여왕의 아들 위구태(尉仇台)가 이끈 2만 군사와 한의 병사들이 힘을 합쳐 대항하여, 고구려군이 대패하였다(『삼국사기』 권15, 태조대왕 69년 12월).

태조대왕 69년(121) 12월에 마한과 예맥까지 포함한 1만여 기를 동원해 한과 전투를 벌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가 기병을 이용해 전투를 벌였음은 신대왕 8년(172)에 한이 쳐들어오자, 청야전술로 한 병사들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퇴각하는 순간 수천의 기병으로 쳐서 크게 이겼다<sup>15)</sup>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기병의 주된 임무는 기동성을 이용해 적의 측면을 돌파하고 적의 대형을 교란시키는데 있다고 하는데,<sup>16)</sup> 신대왕 8년의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기병이 적의 기습에 이용된 사실은 유리명왕 11년(9) 선비와의 전투에서 용기(勇騎)로 표현된 기병으로 공격해서 속국으로 삼은 기록<sup>17)</sup>에서도 찾아진다.

15) 『三國史記』 卷16, 新大王 8年 11月.

16) Arther Ferrill·이춘근 역,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1990, 107~110쪽.

17) 『三國史記』 卷13, 瑠璃明王 11年 4月.

기병의 수와 관련해서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중천왕 12년(259)<sup>18)</sup>과 광개토대왕 3년(394)<sup>19)</sup> 그리고 안원왕 10년(522)<sup>20)</sup>에는 정예 기병을 뜻하는 정기(精騎)로, 동천왕 20년(246)에는 철갑을 두른 기병인 철기(鐵騎) 5천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정기와 철기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도 크게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구려가 1차례의 전쟁에 가용할 수 있는 정예 기병이 5천 정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고구려의 기병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도움을 준다.

그 나라의 말은 모두 작아 산에 오르기 편리하다. 나라 사람들은 기력을 숭상하여 활·화살·칼·창을 잘 쓰고 갑옷이 있으며, 전투에 익숙하여 옥저·동예를 모두 복속시켰다.”(『남사(南史)』동이열전 고구려)

키가 3척 쯤 되는 말이 나는데, 옛날 주몽이 탔던 말 종자라고 한다. 바로 과하마(果下馬)가 그것이다(『북사(北史)』열전 고구려).

고구려 기병의 주요한 말이 과하마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와 만주 동북부 지역에서는 체구가 작은 과하마가 상당한 강점을 발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병은 무장을 완벽히 한 중장기병과 가볍게 한 경장기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구려가 정기로 표현된 철기 5천은 중장기병이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기병의 무장은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통구 12호분의 벽화를 보면, 갑옷으로 중무장한 사람과 말의 모습이 나타난다. 말에 탄 무인은 커다란 창을 손에 들고 돌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창용 창은 삭(槊)이라고 하는데, 삭의 존재는 『주서』이역열전 고구려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병기에 갑옷·노(弩)·활·화살·가지창(戟)·삭(稍)·모(矛)·정(鎧)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삭(稍)이 삭(槊)과 같은 글자이기 때문이다.

기창의 사용은 삼실총 공성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무장한 두 명의 무인인 가지창을 휘두르며 격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통구 13호분 기마무사의 뒤편으로는 말에서 내린 무인이 칼을 들어 적의 머리를 자르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마도 삭과 함께 칼도 기본적인 무장이었을 것이다.

18) 『三國史記』卷17, 中川王 12年 12月.

19) 『三國史記』卷18, 廣開土王 3年 7月.

20) 『三國史記』卷19, 安原王 10年 9月.

기병의 강함은 고구려 시대의 기록은 아니지만, 『삼조북맹회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통구 12호분 벽화



그림 16) 삼실총 공성도 중 기마무사

(1126년) 하북로(河北路) 병마검할(兵馬鈐轄) 이간(李侃)이 병사 2000명으로 금 기병 17기가 싸워 크게 패배하였다. (이 때 송과 금은) 화의가 이미 결정되어 금의 기병 17기에 문서를 주어 그 조정에 보고하려 보냈다. 그들이 자주(磁州)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간은 자신이 병관으로서 (여진을) 기습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있었기에 금군(禁軍)과 민병 2000명을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17기와 만났을 때 금인이 말하기를, “군사를 부릴 필요가 없다. 지금 성 아래에서 이미 강화를 맺었고, 나는 (이 사실을) 조정에 가서 보고하도록 그쪽의 태자낭군(太子郎君)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간은 믿지 않고 싸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여진) 기병 17기는 셋으로 나누어 7기를 앞에 두고 각 5기씩을 좌우 날개로 삼았다. 조금 가까이 온 후에 앞의 7기가 달려 나오자, (송의) 관군이 조금 틈을 내보였다. 이에 좌우 날개에서 기세를 잡아 공격하였는데 달을 달리 화살을 쏘니, 관군은 어지러이 도망하였고 죽은 자가 거의 반에 이르렀다(『三朝北盟會編』 卷36, 靖康 元年 2月).

이 기록은 송 흠종 정강 원년(1126)에 송의 보병과 금 기병이 충돌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17기의 금 기병이 2,000명의 송 보병을 상대해 무력화시킨 내용으로, 송의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한 사실이다. 기병의 전투력을 무서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자리 잡은 지역은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장수왕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한반도가 중심 지역이 되었으며, 전략전술도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광개토대왕대에 거란 지역 혹은 신라와 백제를 공격해 우위를 차지했을 시기에 기병을 이용한 공격전술에 치중했다면, 그 이후에는 산성을 중심으로 한 수성전 즉, 방어적인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당과의 전쟁을 치루는 기간에 두드러진다. 고구려가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를 하면서 보급로를 차단하며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전술을 주로 구사했기 때문이다.

## 기마무예 훈련과 시험

고구려의 무예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사례를 통해 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학습보다는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거나, 말을 보살피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형태였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전설이 영웅담이라는 점에서 주몽의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탓일 수도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려 중기에 고구려의 영역이던 금에 사신으로 가던 김극기(金克己)가 토아도(兔兒島)

진녕관(鎭寧館)을 지나가며 남긴 시에 “부인들도 말을 달리는 데 능하고(婦人能走馬) 어린애들이 양을 탈 줄 알고(童子解騎羊)”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인들도 자연스럽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17) 덕흥리 고분 중 마사희

하지만 국가의 체계가 잡힌 후에는 좀 더 빠르게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양성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당서(新唐書)』에 기록되어 있는 경당(肩堂)이 주목된다. 혼인하기 전의 소년들에게 글공부와 함께 활쏘기를 교육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궁술과 마술이 어떤 체계를 갖추었음은 덕흥리 고분의 벽화에서 나타난다.

이 그림은 마사희(馬射戲)와 활쏘기를 주관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회주기인(射戲主記人)’ 등의 글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그 성격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활쏘기를 참관하는 이가 기록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희가 단순히 유희가 아닌 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말을 탄 4인이 세워져 있는 표적을 향해 활을 쏘고 있고 3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무인 선발의 모습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기사를 위해서는 보사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시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기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되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시험이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은 한시각(韓時覺)의 ‘길주과시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림 18) 「복새선은도」 가운데 ‘길주과시도’ 부분

이 그림은 1664년 한시각이 길주에서 열린 무과시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무과시험의 다양한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있는 유일한 그림이다. 그런데 사람 모양의 표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는 조선시대 무과의 모습이 덕흥리 고분에 나타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인들은 교육을 통해 기사(騎射)를 습득하는 한편, 사냥 등을 통해 능숙하게 익히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냥은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사냥 기록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분벽화에 사냥 그림이 여럿 남겨져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서』에는 “고구려는 매년 봄가을로 사냥 대회[校獵]를 여는데, 이때에는 왕이 반드시 친림한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온달(溫達)의 일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나라 풍속에 해마다 3월 3일이면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사냥한 짐승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더니, 그날에 왕이 나와서 사냥을 하매, 여러 신하들과 5부병마(五部兵馬)가 모두 따랐다. 온달도 기르던 말을 타고 왕을 수행하였는데, 달리는 것도 모든 사람을 앞섰고 사냥한 것도 많았다. 왕이 불려서 성명을 묻고 깜짝 놀랐다. 이때에 주(周)가 북제(北齊)를 멸하고, 군사를 내어 요동을 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拜山) 들에서 향전하였는데, 온달이 선봉이 되어 수십 급을 베니, 여러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본격하여 크게 이겼고, 공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온달이 으뜸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위로구나”라 하고,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고, 대형(大兄) 벼슬을 주니, 총애와 영화가 넘쳤다.(『삼국사기』 권15, 열전5 온달).

궁에서 쫓겨난 평강공주가 온달을 찾아와 병들고 지쳤지만 국마(國馬)를 구입해 기사를 익혔고 3월 3일의 사냥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평원왕(平原王)의 사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사냥이 매우 중시되었으며,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기사 등의 무예 실력이 곧 능력으로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무용총의 그림에는 사슴과 호랑이 등을 사냥하는 고구려인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시복 등을 착용한 고구려인들은 정면과 후면을 향해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호랑이 사냥과 후면을 향해 활을 쏘는 배사(背射) 방식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약수리 고분 벽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당시 활숨씨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19) 무용총 고분벽화 중 사냥 부분





그림 20) 약수리 고분 벽화 중 사냥 그림



그림 21) 약수리 고분벽화 중 배사 그림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난 이후에 무예수련을 했다고 여겨진다. 이후 온달은 탁월한 무예 솜씨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온달의 재능이 뛰어났기에 가능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무예를 익혀 타인보다 나은 실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인다. 즉, 고구려는 교육을 통해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무예를 익히고, 이후 사냥 등을 통해 숙련시키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고구려의 군사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 참고 그림 -



그림 22) 무용총 고분 벽화 중 무인 그림



그림 23) 쌍영총 무사도



그림 24) 통구 12호분의 기마무사





## SESSION 2

---

#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

김인희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김인희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 1. 한국사 최초의 카레스키 고구려 유민

1) 시기: 669년

2) 이주 지역

『구당서』에 의하면 “江淮 이남과 山南, 并, 涼의 서쪽”으로 이주시킴.

『신당서』에서는 “江淮와 山南”으로 이주시킴.

江淮는 안후이성, 강쑤성 이남의 空閑處로 이주시킴.

3) 구체적 지역

(1) 후난성 서부

『廣異記』 “반호신화—그 후 후손들은 변성하여 黔의 남쪽으로부터 昆, 湘, 高麗의 땅에 이르며 스스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여 고려라는 지명이 후난성 일대에 있음.

『광이기』의 내용은 713년-755년 상황 설명.

(2) 후베이성 남부: 『全唐詩』중 江陵士자가 쓴 ‘寄故姬’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태평광기』에 高麗坡라는 지명 등장.

### 寄故姬

- 강릉에 한 선비가 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집은 가난하였다. 그는 집을 나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내가 5년 동안 사용할 돈을 준비하였다. 아내에게 “내가 만약 5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개가를 하여라.”라고 말하였다. 선비는 떠난 후 5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전 자사에게 시집을 갖고 고려파(高麗坡)라는 고개 아래에서 살았다. 일 년이 지난 후에 선비가 돌아와 아내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뒤 위의 시를 써서 보냈다고 한다. 자사는 시를 보고 돈과 옷을 쟁겨서 여자를 선비에게 돌려보냈다.



## 당나라 시기 山南道, 江南道와 淮南道



### 3) 유민 수

669년 강제 이주당한 전체 유민은 3만 8천 호, 즉 20만 가량.  
그 중 반 이상, 즉 10만 명 이상이 장강 이남으로 이주. 669  
년 후난성 인구는 대략 70만 정도. 고구려 유민은 전체 인구  
의 7분의 1을 차지.

### 4) 이주시킨 이유

- (1) 봉기를 막기 위해. 고구려의 핵심세력이 이주 대상
- (2) 자연소멸. 완전한 고립을 위해 남방으로 이주.
- (3) 莫瑤를 막기 위해. 당나라는 여러 차례 막요를 공격하였으나 정복하지 못함.

막요와 함께 500-600년간 동거.

막요족 문화에 야오족의 특징이 많이 나타남.

## 2. 먀오족의 역사

- 1) 송나라 이전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먀오족  
현재 먀오족은 치우-삼묘-남만-먀오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함.  
송나라 이전 문헌에 먀오족에 관한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먀오족 역사를 쓸 때 송나라 이전은 남만, 삼묘, 치우로 대신.
- 2) 먀오족의 역사가 만들어진 증거
  - (1) 남만 : 먀오족은 반호송배가 없다.
  - (2) 삼묘 : 삼묘는 石家河문화(기원전 2,600-기원전 2,000년)의 주 인공으로 문헌상의 苗는 송나라 때 등장. 3,000년의 역사적 공백이 존재.
  - (3) 치우 : 『國語·楚語』“其後三苗復九黎之德.”와 『史記·五帝本紀』正義引孔安國“九黎君號蚩尤是也.”에 근거. 삼묘는 구려의 덕을 계승한 것으로 혈통을 계승한 것이 아님.

▶ 먀오족 학자들은 민족의 단결을 위해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소급하여 서술하고 전쟁영웅인 치우를 끌어들이었다.

### 3) 먀오족의 역사 형성과정

- 1단계 : 당나라 시기 후난성 서부와 후베이성 남부에는 야오족이 거주.
- 2단계 : 고구려 유민은 야오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정착.
- 3단계 : 고구려유민과 야오족이 결합하여 먀오족 형성.(훈인, 이주민 등이 원인)

▶ 현재 먀오족 중에는 먀오족이 아닌 민족도 있다. 현지조사 시 자신들이 한족이라 밝힌 예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야오족이 먀오족으로 분류된 예도 발견. 현재 먀오족은 고구려 유민을 주간으로 여러 민족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 3. 평양지역 고구려유민의 이동노선

#### 1) 이동노선

산둥성의 萊라는 곳에 모이게 하였는데 萊는 현재 산둥성 煙臺市 萊州.

고문헌에 의하면 이동시기는 669년 4월 혹은 5월. 4월 이후에 이동한 이유는 운하에 물이 차기를 기다린 것.

이들은 동부와 중부 마오족이 됨. 평양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동부와 중부 마오족은 고구려의 귀족문화가 잘 나타남.



2) 마오족 古歌 중 단자이(丹寨) 마오족이 축제 때 부르는 노래에 의하면 조상은 바닷가에 살았다고 함.

3) 마오족은 망자의 영혼을 조상이 이동해 온 길을 따라 초도. 중부 마오족과 동부 마오족의 조상은 동방의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영혼을 초도할 때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

#### •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가

조상은 한족과 3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처음에는 한족이 혼수하(황하) 위쪽에서 배를 타고 와 공격하였다.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 모두 실패하였다. 세 번째 전쟁은 한족이 다른 부족과 연합하여 공격하였으며 활과 화살로 싸웠으나 수령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조상은 완전히 실패하여 물가의 고향을 떠났다

## 4. 만주지역 고구려유민의 이동 노선

### 1) 이동노선

쥬에 모이게 한 후에 내지로 이동 시킴.

營州는 지금의 랴오닝성 朝陽市.

『苗族史詩』에 의하면 얼음이 열고 눈이 내리는 북방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너왔다고 함.

『苗族史詩』에 의하면 마오족의 조상은 한족과 전쟁에 패배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는 과정에 황하와 장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음.



### 2) 옷 위에 그려 넣은 역사

마오족 부녀자들은 조상이 이동해 온 역사를 치마 위에 그려넣었다.

마오족 부녀자들의 치마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는 조상들이 이동할 때 건너온 황하와 장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 5. 먀오족의 자칭은 가뤄

1) 고구려의 마지막 이름은 '고리'

2) 먀오족어 중의 '가'

(1) 자칭

송나라 시기 : 가뤄라 발음. 陸游 『老學庵筆記』卷四 “辰, 沅, 靖州蠻, 有佗伶(동족), 有佗儂(부이족), 有佗(1 覽)(동족), 有佗儂(??), 有山徭(아오족).” 佗儂의 당시 발음은 가뤄. 고구려 멸망 후 500년 후.

먀오족의 모든 자칭에는 가-라는 어두음이 들어간다. 예) 가무, 가나오, 가러오, 가송.

(2) 지명

가루오가상, 카이리, 까리미(조상의 원주지),

(3) 국가 혹은 민족명

가우(조상이 살았던 국가), 가로우(고대 먀오족 부락 이름)

(4) 조상 이름

가다오(鼓社節 때 제사하는 조상), 가라오미에(무속을 창시한 사람)

▶ 먀오족어에서 '가'는 존칭, 귀중한 물건. 고구려의 高도 높다, 존귀하다는 뜻.

3) 고구려(고리)가 먀오족이라 불리게 된 이유

- 송나라 시기 주희는 후베이성 남부와 후난성 서부에 거주하는 가뤄가 자주 난을 일으키자 흉포함이 三苗와 닮았다고 하여 苗라고 부르기 시작.
- 원, 명, 청을 거치며 먀오족 외에도 남방의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야만인이라는 의미로 사용. 중국의 통치자는 남방소수민족을 침략할 때면 “삼묘는 난폭하다, 삼묘는 교화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어 침략을 정당화.
- 20세기 초 烏居龍藏이 현재의 苗族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

▶ 중국어에서 ‘苗’는 천시하는 의미가 있음.









## 8. 고구려의 도성을 등에 지고

### 1) 마오족 복식 중의 도성(인장) 문양

서부 마오족의 경우 거의 모든 여성들의 복식에 도성(인장)문양이 있다.

마오족 남자는 역사를 입에 새기고 여자는 옷에 남긴다는 말이 있다. 부녀자들은 가지고 갈 수 없는 도성을 문양으로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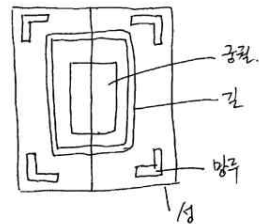
### 2) 도성문양은 마오족의 특징

말콤 글래드웰은 역사문화적 유산은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는다고 함.

중국 남방의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국가가 있었으며 도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승하지 않음.

마오족은 도성과 궁궐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승이 가능.

## 小花苗의 도성 궁궐 문양



## 四印苗의 印章 문양



윗옷에 4개의 인장 문양이 있다. 자신들의 조상은 인장을 가진, 즉 주권을 가진 민족임을 의미. 망자의 얼굴에 인장문양을 덮어주는데 죽어 저승에서 조상을 만날 때 필요하기 때문. 인장(도성)문양은 마오족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 9 주몽신화

### 1) 난생하는 주몽과 마오족 시조

#### (1) 마오족고가 중의 난생신화

봄꽃어머니는 양리알(알 이름)을 낳았으나 품으려 하지 않았다.

지웨이새(큰 새)에게 품게 하여라.

둘은 같은 어머니가 낳았다.

지웨이새가 와서 대신 알을 품었다

#### (2) 八寨 黑苗의 전설

산 속에 9개의 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햇빛 아래서 품어 8명의 아들이 나왔고 막내아들이 마오족의 시조가 되었다.

▶ 주변의 백월민족은 난생신화가 없다.

## 10. 동맹, 영고, 鼓社節

### 1) 시기

동맹과 고사절은 10월에 제사한다.

### 2) 고구려와 마오족은 태양력 사용.

日, 月관련 용어의 공통점

중부마오족은 해(日)를 'hnaib', 年도 'hnaib'라고 함.

달(月)은 'hlab'라고 발음하고 한 달이란 의미의 달도 은 'hlab'라고 발음.

마오족은 “새해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함.

### 3) 북과 나무로 깎은 신상을 동굴에 보관.

### 4) 북에 조상의 영혼을 강림시켜 맞이한 후에 축제 거행.



조상의 영혼을 나무를 통해 강림시키는 모습



조상의 영혼을 북에 담아 옮기는 모습

## 11. 조익형 관식

1) 조익형 관식은 고구려와 마오족에서만 발견



신라의 조익형 관식



마오족의 조익형 관식

2) 고구려의 조익형 관식

4세기 무렵 고구려 마선구 무덤에서 금제 관장식 발견  
집안 출토 금제 장식은 신라 조익형 관식의 시원  
태왕릉 출토 조익형 관식은 두 개의 새날개로 구성.



집안 출토 조익형 관식



태왕릉 출토 조익형 관식

## 12. 금은장식을 중시하는 고구려인과 먀오족

- 한족은 옥을 중시, 먀오족은 은을 중시
- 고구려, 백제인은 금으로 장식
- 고구려, 백제인은 금꽃, 은꽃으로 장식
- 먀오족은 은꽃으로 관을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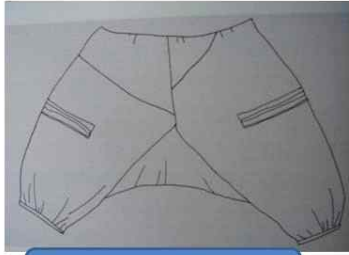
은꽃으로 장식한 먀오족

## 13. 궁고와 쫘우

- 고구려의 궁고 :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큰 바대를 댄 바지
- 궁고는 노인-우라의 바지와 같은 형태
- 흰바지먀오족(먀오족)의 바지인 쫘우도 궁고와 같은 형태.
- 유목민은 말을 타야 하기 때문에 바대가 넓은 궁고를 입었다.
- 중국의 한족은 원래 개당고를 입었으며 남방 민족들은 경의를 입었다.



## 삼각형의 바대를 댄 바지



노인 우라 바지



흰바지야오족 바지

## 엉덩이가 튀어 나온 궁고



고구려



흰바지야오족

## 14. 주름치마

- 고구려의 주름치마-플리츠스커트 형태
- 일본 정창원의 주름치마-고구려 치마
- 남방 민족은 筒裙을 입음
- 유목민의 선택-주름치마
- 농경민의 선택-통군

## 주름치마



고구려



마오족

## 남방민족의 치마-통근



명청시기 통근



현대  
傣族  
통근

## 15. 절풍

- 절풍은 고구려에서 신분에 관계 없이 가장 많이 쓴 모자
- 윗부분이 둥근 형태도 있고 원뿔형도 있음
- 끈으로 고정
- 원뿔형 모자는 북방 유목민의 모자
- 大花苗의 까오포는 원뿔형
- 大花苗는 고대 왕이 썼던 모자라고 함.
- 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망을 할 때 까오포에 곡식을 보관하였다고 함.



## 고구려의 절풍과 마오족의 까오포



고구려



마오족

## 고구려인과 大花苗의 절풍과 복식



절풍은 쓰고 도포를 입은  
고구려 사신



까오포와 소매가 넓은 마오족 복식

## 16. 남자가 장가간다

- 고구려는 여자집에 살면서 아이가 장성한 후에 데리고 돌아옴.
- 마오족은 예전에는 남자가 장가갔다.
- 安順의 西秀區 마오족은 여자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중국 내 다른 민족에서 발견 안됨.



## 17. 형사취수

- 형사취수는 보통 북방 유목민의 습속.
- 중국 남방의 경우 중국 서북지역에서 남하한 저강계통의 민족에 보인다.
- 마오족의 경우 이전에 보편적으로 행했다.
- 주변의 백월민족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음.

## 18. 시신을 집 안에 묻는다

- 『북사』 고구려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빈소를 집안에 두고 3년이 경과하면 길일을 택해서 장사지낸다.”
- 시신을 집 안에 매장하는 습속은 내몽골 赤峰市 敖漢旗의 興隆溝 유적에서 기원
- 흰바지야오족도 시신을 집 안에 묻는다.



집 안에 매장했던 관을 꺼내놓고 곡을 하는 흰바지야오족 사람들

## 19. 죽어서야 고구려 땅으로

- 마오족은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과 만난 후에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
- 서부 마오족은 망자의 영혼이 황하와 경강을 건너 북방으로 간다고 생각
- 중부 마오족은 동방의 끝으로 간다고 생각

해가 뜨는 언덕을 지나  
동방의 끝으로 가면  
조상이 사는 곳이 가까워지는데  
조상의 땅이 어렴풋하게 보인다.

(指路經의 마지막 내용)  
조상의 집에 도착하여  
조상의 치마를 잡고  
조상의 옷자락을 잡고  
나는 행복하다

## 20.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남방으로 이동한 후 당나라에 동화되어 사는 삶과 고구려 유민으로 사는 삶 중 고구려유민으로 사는 삶을 선택.

이들의 고난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시작. 가장 나중에 남방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소수민족 중 가장 고산에 거주.

### 1) 노예로 살아온 서부 먀오족

송나라 말기 구이저우 서북 일대로 이동. 이족 토사의 밑에서 노예로 생활. 먀오족 중 가장 낙후. 현지 민족 중 가장 낙후. 일년 수입이 중국 돈 1,000원 정도.



2) 1000년간 자치권을 유지한  
중부 마오족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200년간 300여 차례 공격하  
나 효과를 거두지 못함.  
생모를 막기 위해 명나라 때 苗  
疆邊牆을 쌓음.  
청나라 시기 개토귀류가 실시될  
때까지 치외법권 지역.  
청나라는 몰살과 몰아내기 정책  
실시.  
다섯 살 이상의 남자를 모두 죽  
였다고 함. 3분의 2의 마오족  
이 죽음. 100년간 마오족의  
3대 투쟁이 있었다.



명나라 때 苗疆邊牆

- 함동기이는 1872년 5개 성의 군대  
가 공격하여 패배. 지도자인 장수  
미에게 청나라 통치자가 물었다.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장수미는 대답했다.

“너희 관가와 지주는 우리를 먹었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고 우리의 골  
수를 부숴버렸고 조상의 뼈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반란  
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  
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도 反歌라는  
제목으로 마오족들 사이에 전승되  
고 있다.



무장한 마오족의 모습



## 21) 디아스포라 운명 마오족

### 1) 반란의 민족

마오족들은 말한다. 한족이 우리를 하루 무시하면 우리는 하루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마오족은 30년 만에 작은 반란을, 60년 만에 큰 반란을 일으킨다. 둘은 बे개로 삼을 수 없고 한족은 친구로 삼을 수 없다.

### 2) 끝없는 이동

복숭아꽃이 피면 마오족이 떠날 때. 늙은 오리는 집이 없고 마오족은 살 곳이 없다.

청초 동남아로 이동, 베트남 전쟁 이후 서방세계로 이동.

### 3) 불굴의 민족

오스트레일리아의 인류학자인 게디스는 “세계 역사에는 끝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이겨낸 두 개의 민족이 있다. 하나는 마오족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했다

## 마오족의 이동 노선



## 에필로그

- 고구려유민은 이제 마오족이 되었다.
-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1,300년간 지켜왔다.
- 중국 정부는 고구려유민이 한족이 되었으며 중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라 한다. 그러나 중부마오족의 경우 1,000년간 자치권을 유지하였으며 현재 5분의 1의 마오족은 중국 외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유민이 한족 또는 중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았던 마오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 (사)문화다움

www.daumian.org

(사)문화다움(前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은 21세기 한국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한국인의 기질과 감성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문화예술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 후 10년 동안 300여명의 문화기획/예술경영 전문인력 교육, 지역문화인력 1천여 명에 대한 재교육 등을 수행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 전남 곡성군, 제주도, 경남 통영시, 충남 서천군 등 여러 지역과 수년간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역인력교육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 10주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 성과를 다지고 다음 10년을 향한 새로운 다움 지향가치로서 “삶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고, 모든 인류의 오래된 정신적 자산을 풍요롭게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영역이 협력하는 문화기획의 실현”을 설정, 사업영역을 지역다움, 인류문화창고, 문화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서구식 예술경영의 틀을 넘어 한국적 문화기획, 예술경영의 모델을 구축했던 다움은 다가오는 10년을 통해 한국, 아시아, 동양과 서양 등의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의 오래된 정신적 자산과 문화의 가치를 현대 문화기획의 현장에 풍요롭게 활용하기 위해 “인류문화창고”를 구축하는 사업을 긴 호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문화창고의 지향가치에 따른 사업내용은 포럼, 예술프로젝트, 인적교류, 출판 등 광범위하며 본질적으로 다움이 단독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다움은 인류문화창고의 처음 길을 연다는 마음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협동작업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문화자산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면면히 계승될 수 있는 길, 소통의 방법, 오늘의 삶에 던지는 의미를 찾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다움에서는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의 첫 걸음으로 몽골 국립예술대학, 러시아 브리야트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와 문화협력관계(MOU)를 맺고 2008년부터 국제문화포럼 <Tree of Cultur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움’이라는 명칭은 ‘아름다움’, ‘사람다움’ 등의 우리말에서 따온 것으로 사물이 자기다움을 가질 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  
Post-Tree of Culture, Gyeongju 2012  
무(巫) . 무(武) . 무(舞)  
유목에서 정주로, 고대 정신문화의 제도화

(사)문화다움

---

**총괄**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운영** 강원형 (사)문화다움 기획실 팀장  
조아람 (사)문화다움 기획실  
유수연 (사)문화다움 기획실

---

퍼낸날 ॥ 2012년 10월

퍼낸곳 ॥ (사)문화다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4-1 성북프라자 5층(136-823)

Tel. 02-364-2992, Fax. 02-364-2993

[www.daumian.org](http://www.daumian.org)

본 세미나 자료집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ree of  
Culture

주최·주관 |  문화다음  
Daum Society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